

'그린카드' 1년… 광주·전남 보급률 최하위

전국 4.9% 수준 불과… 사용처 확대·적극적 홍보 필요

녹색제품 구입시 포인트·에너지 절감 가정에 인센티브

'그린카드' 출시 1년(지난해 7월 출시)을 맞았지만 광주·전남지역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는 지적이다.

또한 보급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캠페인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그린카드 보급률은 광주 6만4938매, 전남 6만7969매 등 모두 13만2901매로 전국(270만매)의 4.9% 수준에 불과했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이 26만3085매로 가장 보급률이 높았고, 대구 18만

6244매, 인천 12만471매 순으로 광주에 비해 보급률이 앞섰으며, 울산(6만2090매)과 대전(4만6754매)의 실적은 가장 저조했다. 하지만 광주가 최하위권인 울산과 대전과 별반 차이가 없을뿐더러 인천의 절반 수준에 그쳐 보급률 확대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경우도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44만107매)의 6분의 1수준에 그쳤으며 경남(17만3405매)과 경북(12만9047매)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었다. 이 같은 이유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경우는 ▲문화예술관 시립예술단 공연 20% ▲우치공원 50% ▲시립미술관 20% ▲시립민속박물관 4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그린

카드제도는 그린카드로 녹색제품(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인증 등)을 구입할 때 제품 가격의 1~5%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최고 20%까지 적립해주기도 한다. 또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연간 최대 7만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가정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8곳의 유통업체와 41곳의 제조업체, 4곳의 서비스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전국 국립공원과 휴양림 이용시 할인 및 입장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의 경우는 ▲문화예술관 시립예술단 공연 20% ▲우치공원 50% ▲시립미술관 20% ▲시립민속박물관 4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고 전남에서는 ▲낙안읍성·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무료 입장 ▲목포 자연사박물관·문학관 무료입장 ▲보성 태백산백문화관·한국차박물관·율보해수녹자당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그린카드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부족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사용처를 보다 다양한 곳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올초부터 지역 은행,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연말까지 사용처를 편의점까지 확대, 대형마트 포인트 적립 혜택 확대, 복지시설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6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 삼거리에서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가 19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주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 몸속 중금속 농도는 환경부 보건기초조사 2014년까지 6000명 대상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쓰인 중금속의 양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국민의 인체 내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 농도와 체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2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과학원은 오는 2014년까지 3년 간 전국 400개 지역에서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한 해 2000명씩)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조사원과 분석 요원 60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중금속 3종 ▲내분비계장애물질 7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4종 ▲휘발성유기화합물 5종 ▲농약 1종·담배연기 1종 등 21종의 환경오염물질 조사

를 진행한다.

또 환경오염물질이 건강상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19개 항목의 임상검사와 환경노출 요인과 경로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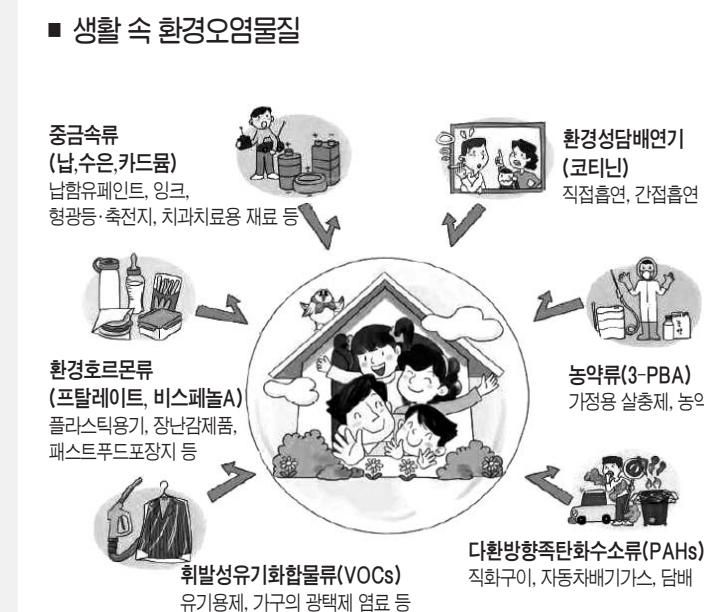
악을 위한 설문조사가 병행된다. 조사를 통해 환경 및 건강문제가 발견되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별도의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조사 결과 한국인의 혈액 중 수은은 농도의 경우, 기하평균(幾何平均) 3.08 $\mu\text{g}/\text{l}$ 로 2005년 4.34 $\mu\text{g}/\text{l}$ 에 비해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됐다.

하지만 독일(0.58 $\mu\text{g}/\text{l}$)의 5.3배, 캐나다(0.69 $\mu\text{g}/\text{l}$)의 4.5배, 미국(0.94 $\mu\text{g}/\text{l}$)의 3.3배에 달하는 등 외국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원은 보고 있다.

특히 고노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농도 상위 5%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들은 9.9 $\mu\text{g}/\text{l}$ 로 독일(2.0 $\mu\text{g}/\text{l}$)과 캐나다(4.7 $\mu\text{g}/\text{l}$), 미국(5.32 $\mu\text{g}/\text{l}$)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원 관계자는 "미국, 독일 등에서는 오염물질 노출과 건강문제를 파악해 국민건강보호정책에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 위와 같은 환경오염물질들은 소화기, 호흡기, 피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물질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금연, 태운 음식 섭취자제, 야채 잘씻기, 폐건전지·영광등 분리수거 등 건강한 생활습관 및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섭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환경 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남방큰돌고래' 잡으면 징역 3년

'보호대상 해양생물' 신규 지정… 불법포획 처벌 강화

불법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등을 무단으로 포획할 경우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 바다거북, 해마 등 8종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해 무단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돌고래 쇼' 등으로 등불 학대 논란이 제기된 제주 남방큰돌고래, 바다거북 4종(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장수거북, 배비바다거북), 해마 2종(복해마, 가시해마), 무척추동물인 기수갈고등 등 총 8종이다.

지금까지는 남방큰돌고래 등을 무단으로 포획·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기워진다. 또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공연 목적의 포획도 함께 금지된다.

아울러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던 바다거북, 해마, 기수갈고등을 무단 포획·유통시에도 남방큰돌고래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내에 국토부에 신고해 보관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신고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가자미 두눈, 얼굴 한쪽으로 몰린 이유?

납작한 몸 바다 밑바닥에 불인채 살기 때문

넙치, 가자미, 서대기 등 가자미목 물고기는 얼굴 한 쪽에 두 눈이 빠져 하게 물려 있는데다 입의 방향과도 어긋나 있어 진화학자들의 수수께끼로 불리고 있다. 특히 남방큰돌고래, 바다거북, 해마 등 8종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해 무단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국립수생생물원은 "이처럼 넙치, 가자미, 서대기 등 가자미목 물고기는 얼굴 한 쪽에 두 눈이 빠져 하게 물려 있는데다 입의 방향과도 어긋나 있어 진화학자들의 수수께끼로 불리고 있다. 특히 남방큰돌고래, 바다거북, 해마 등 8종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해 무단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학자들은 약 600종에 달하는 가자미류의 눈이 왜 한 쪽에 물려 있는지 알고 있다. 이들은 물에 떠 있는 유생(幼生) 단계에서는 눈이 미리 양쪽에 나 있지만 성체가 되면서 바다 밑바닥에 남작한 몸을 바짝 불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위로 향하는 얼굴 한쪽에 두 눈이 물리게 된다.

그러나 두 눈이 얼굴 한 쪽에 물려 있는 가자미류는 찰스 디윈의 진화론이 발표된 초기에는 자연선택 가설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눈이 이동하는 중간 과정의 가자미화석이 없었기 때문에 진화론에 회의

적인 학자들은 가자미의 생존에 유리한 이런 특징이 어떻게 느린 속도로 진화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프리드먼 교수는 '헤테로네토스'(Heteronectes) '색다르게 해엄치는 고기'라는 뜻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5000만년 전의 이 화석 물고기에서 바로 그 중간 과정을 발견했다.

이탈리아 북부의 고생물 유적지 불카에서 오래전에 발견된 뒤 미분류 상태로 보관돼 있던 이 물고기의 왼쪽 눈은 두 개가 꼭대기 부위 쪽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지금의 위치까지 나오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고기 화석 전문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연사 박물관의 존 룰 박사는 "이것은 일부 창조론자들에 따르면 존재할 수 없는 중간 단계의 형태를 분명히 보여주는 의미깊은 발견"이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례화장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정현로이사 010-5879-0005

농성동[원룸] 대99m² 24456m² 김정가 4억6천 최저가 3억2천

영암삼호[근린시설] 대77m² 건152m² 김정가 9억2천 최저가 15억1천

화순도곡[방원직립] 대3234m² 24280m² 김정가 42억3천 최저가 15억1천

전주우아들[나이트] 대1794m², 건3968m² 김정가 69억3천 최저가 24억 청사 24억8천

신동[스포츠장] 대3026m² 215984m² 김정가 19억8천 최저가 12억7천

차평동[유동주점] 대164m² 9444m² 김정가 124억7천 최저가 44억7천

중흥동[방원직립] 대2075m² 건12510m² 김정가 124억7천 최저가 44억7천

유동화자산매각 정현로이사 010-5879-0005

금동[목욕탕] 대지 91평 ▷ 건물 303평

김정가 10억 대지 958평 ▷ 건물 5346평

김정가 222억9천 대지 1298평 ▷ 건물 40억(협의후결정)

김정가 79억7천 대지 1482평 ▷ 건물 299평

김정가 1600만 대지 1482평 ▷ 건물 59평

김정가 5억 대지 1482평 ▷ 건물 59평

용봉동[하이스포츠센터]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김정가 515억7천 대지 2455평 ▷ 건물 445평

김정가 18억2천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김정가 135억 대지 646평 ▷ 건물 1708평

김정가 43억 대지 18억2천 ▷ 건물 18억2천(협의후결정)

김정가 164평 대지 18억2천(협의후결정)